

# “통신사 예하부대도 대리투표”

## 파견·휴가병에 전화로 후보선택 요구 행정병 폭로 인사계, 본인의사 무시 1번 짝어

### 부대일지엔 ‘직접투표’ 기록...모의투표도

**[부산=이수운 기자]** 군 부채자 투표 부정사건이 장병에 의해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국군 통신사령부(통신사·사령관 박동화 준장)에서도 파견근무자와 휴가병들에 대해 전화를 통한 대리투표를 하도록 했다고 통신사 예하부대의 한 중대에서 이번 총선 때 부채자투표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행정병이 폭로했다.

이로써 육군·공군 예하부대에 이어 국방부 직할부대에서도 부채자투표 부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이 사병은 최근 휴가중 기자와 만나 자신이 이번 총선 때 부채자투표 명부를 직접

맡았던 중대 행정병이라며 “내가 소속한 통신사 중대는 부채자투표 대상자 전원을 투표에 참여시켰는데 이들 가운데 15% 정도에 해당하는 파견근무자와 휴가병의 경우 각각 파견부대와 집에 전화를 걸어 기표를 원하는 입후보자의 번호를 부르게 한 뒤 대리투표했다”고 밝혔다.

이 사병에 따르면 공군 및 해군 OO부대 등에 파견근무중인 박영수(가명) 일병 등 사병 10여명의 경우 지난 18일 중대본부에 들어와 직접 투표한 것으로 부대 일지에는 기록돼 있으나 정문초소의 배치일지에는 이들이 부대에 들어온 기록이 없는데 이는

자신과 인사계가 전화를 걸어 대리투표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휴가병 김성일(가명) 상병 등 몇명도 같은날 중대에서 집으로 시외전화를 걸어 대리투표를 하게 했으며 이들은 휴가 마지막날인 20일 오후 8시까지 귀대했는데도 대리투표한 용지는 모두 6시간전인 이날 오후 2시 이미 해당 선거구로 발송됐다는 것이다.

이 사병은 이런 대리투표가 인사계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전화를 걸거나 인사계가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자신이 사병들의 의사를 존중한 데 비해 인사계는 해당 사병의 대답

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1번에 기표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병은 또 “투표 업무를 보면서 부채자투표 용지를 넣는 봉투의 길지와 속지가 누런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등으로 지역마다 서로 달라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며 이런 색깔 차이가 투표를 하는 병사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같았다”고 밝혔다.

이 병사는 이와 함께 부채자투표가 진행중이던 18일 중대장의 자시에 따라 쪽지를 나눠주고 모의투표를 실시했다고 말하고 ‘모의투표 결과 야당지지를 75% 이상 나오자 인사계는 중대장에게 50%로 낮춰 보고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대장도 상급부대에 야당지지를 보고했으나 몇퍼센트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

다.

이 사병은 또 선거기간에 부채자투표 용지의 접수 및 발송 현황을 매일 상급부대와 영내 보안반(기무부대 파견반)에 보고했으며 부채자신고서가 해당지역구에서 반송돼 올 경우 해당자를 직접 주소지로 데려가 투표를 하게 한 뒤 확인서를 받아 오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병은 이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병 가운데 행정반 근무자는 천으로 가리지 않은 기표대에서, 일반 사병은 내무반과 근무처 등에서 반공개적으로 투표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병은 자신의 부대에서 이렇게 공공연한 대리투표가 이뤄진 것은 부대별로 부채자투표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지휘관이 상부로부터 문책을 당하고 진급에 불리한 인사평정 등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며, 전화를 통한 대리투표는 투표를 제고과정에서 빚어진 부정사태라고 주장했다.

이 사병은 또 “선거기간중 공식적으로는 상급부대로부터 공명선거를 강조하는 공문을 받았으나 하급부대에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것은 일선지휘관들이 진급 등을 의식해 상급지휘관이나 기무사 등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부채자투표 기간중에는 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파견근무자들은 직접 파견된 곳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강력 부인한 뒤 “믿을 수 없는 제보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